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9. 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14:00~18:4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53호, 제154호, 제169호~제177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1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및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53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54호 『(주)청담러닝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제153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라인이 ○○○ 이사 위에는 ○○○ 전무 그위에는 ○○○ 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이 세 분

이 보고라인인지?

▶ (진술인) 저는 000 CFO에게만 주로 보고를 받음.

○ (위원) 000 대표이사님께서 이 안건 관련하여 보고 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고 하시는데, 다른 일들은 보고라인에 따라서 다 보고 받는데 이 회계부정,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지? 그러면 000 전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0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2019년 1월 30일에 최초로 000 전무에게 보고를 받아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위원) 000 전무는 그전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왜 2019년 1월30일에 보고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 당시 00회계법인의 지정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지정감사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장을 갔었음. 그런데 전기 감사인이 선수금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재작성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중간 중간에 나와서 오래 통화를 했었음.

○ (위원) “사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아니면 비주기적으로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진술인) 저도 그때 알았음.

○ (위원) 000 이사님께서서는 000 전무한테 언제부터 보고하신 것인지?

▶ (진술인) 선수금 관련해서는, 실적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압박으로 느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다음 분기 것을 이번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부풀려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00회계법인 감사 당시에 이런 사건을 알려 주게 되었음.

○ (위원) 000 이사님의 서면진술에는 “본인은 000 전무의 지시를 받은 후 영업이익 조정치에 대해 CFO에게 보고하였으며, CFO는 실적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 (진술인) 수정 할 당시에 정확한 내용까지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선수금 조정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은 맞음.

○ (위원) 그렇다면 000 전무는 000 이사에게 영업이익 조정치 등 관련해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저는 ООО 대표이사도 ООО 전무가 보고했을 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함. 이것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인데 대표이사는 보고를 받을 권한도 있고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음.

▶ (진술인) 원래 ООО 대표이사님 스타일이 사업은 본인이고 재무는 CFO에게 맡긴다는 논리가 강하셨고 모회사에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하는 입장이었음.

○ (위원) 前회계팀장 ООО 이사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나름대로 ООО 전무의 심중을 헤아려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음. ООО 이사님께서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ООО 전무의 심중까지 헤아릴 이유가 있었는지? 회사의 실적이 좋아 보이게 하면 회사나 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본인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 (진술인) 저는 상장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회사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었고 제가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위기감을 먼저 더 느꼈으며, 저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없었음.

○ (위원) 금감원에서 사전통보한 내용인 회계부정, 선수금 그리고 퇴직급여부채 과소계상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선수금이 됐든 퇴직급여 부채가 됐든 이 회계 위반에 대한 지시자는 CEO인지 CFO인지, 회계팀장인지?

▶ (진술인) CEO인 저는 결코 지시한 적이 없음.

▶ (진술인) CFO인 저는 사후에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2017년 2월에 2016년의 실적조정이 회계사들도 한 5억 원 정도 조정을 해보자고 했을 때 회계사들이 봐도 문제없는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 (위원) 회계팀장님, 지금 CFO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오류라기보다 저는 그것을 약간 확대해석한 그런 것이 그 이후에도 있었던 것 같음.

○ (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행자는 회계팀장님이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다음 인지 여부임. CEO께서는 언제 회계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셨는지?

▶ (진술인) 2019년 1월30일로 알고 있음.

- (위원)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후에 알게 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진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검찰통보를 업무정보제공으로 낮춰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함. (주) OOOOOO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월에 본 건 포렌식 조사를 시작했음.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반 정도 지났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무제표는 다 수정이 됐고, 문제를 일으킨 임직원은 모두 퇴사를 했음. 포렌식 조사, 그리고 금감원 감리를 통해서 위반 사항은 대부분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함. 만약 검찰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아마 추가로 밝혀질 상황은 사실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임. 문제를 일으킨 임직원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정도일 텐데, 그렇다면 굳이 검찰통보보다는 수사의뢰성 통보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위원) 2017년 1/4분기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CFO께서 말씀하셨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2016년도의 선수금 조정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손익이 계획대로 안 나왔으니까 조정이 있었고, 분기의 경우에

는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나 1년 감사를 할 때 그 때 정정(correction)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처음에 CFO께서는 틀림없이 이것이 회계기준에 위반 (violation)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반기에 반영 안 하셨음. 그래서 반기까지 10억 원을 분식이든 그런 상태로 봤고, 2017년말 결산할 때도 여전히 반영을 안 하셨음.

▶ (진술인) 상반기에는 5억 원으로 알고 있었고 종합적으로 선수금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린 포렌식 적출 엑셀자료대로 제가 2018년 초에 보고를 받았음.

- (위원) 6억 5,000만 원은 퇴직금인지?

▶ (진술인) 맞음.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고 했을 때 “강사퇴직금은 사실 모호한 영역이어서 이것은 OO회계법인에서도 넘어간 것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는 ‘아, 이 10억 원만 문제구나.’ 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

- (위원) 그러면 CFO께서 인지하셨던 것은 16억 원인데 6억 원은 회계법인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신 것이고 문제되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인지를 하셨음. 그런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가 나왔음.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금액이 늘어났음. 오늘 저희가 왜 회계팀장님을 불렀느냐하면 두 분의 진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CFO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10억 원과 6억 원 정도의 분식규모만, 그것도 사후에 알았다고 했는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60억 원과 퇴직금도 6억 원 이상으로 나왔음. 그런데 이것이 회사에서 누군가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임. 그러면 OOO 회계팀장님은 이것을 모르셨는지? 회계팀장님께서 사실확인서를 2개 제출을 하셨는데 회계팀장님의 첫 번째 진술서와 두 번째 진술서가 조금 충돌이 있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선수금이라는 것은 다음 미래의 매출을 조기에 인식했기 때문에 해당 기수에 가서 다시 환원이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 숫자로 매번 회귀하면 숫자가 아무래도 전기 내지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지 그 이상만큼 선수금을 다시 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고는 그렇게 나왔음.

- (위원) 결론적으로 CFO는 한 10억 원 플러스 퇴직금 6억 원으로 생각했는데 포렌식을 해 보니까 60억 원, 퇴직금은 한 10억 원이라고 함. 이것은 회계처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임. 60억 원 플러스 10억 원이라는 정보가 CFO한테 전달이 됐는지?

- ▶ (진술인) 저는 그 숫자 안의 차이 금액은 선수금이라고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음.
- (위원) 거기 보고에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추정으로 말씀하지 말고 그 보고에 금액이 10억 원인지 60억 원인지?
- ▶ (진술인) 60억 원임.
- (위원) 그러니까 조정전 보고, 조정후 보고가 60억 원으로 이루어졌다면 CFO는 60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는 금액을 보고도 그냥 묵과하신 것인지?
- ▶ (진술인) 그것이 아니라 선수금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임.
- (위원) 그러니까 선수금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60억 원이라는 것을 CFO도 인지했는지? 조정전 보고, 조정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조정전 보고, 조정후 보고를 하면서 이 정도 보고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안 했지만 CFO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그런 표현이 두 번째 진술서에 있음.
- ▶ (진술인)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했으며 보고할 때 그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음.
- (위원) 아까 법무법인에서 포렌식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

는데 결국은 회사가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임. 어쨌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CFO가 적극적으로 포렌식을 하자고 해서 포렌식이 된 것은 사실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CFO도 규모와 그런 부분은 최초에 발생되었을 때는 잘 인지를 못했으나 사후에 진행이 되면서 인지를 한 것으로 보임.

▶ (진술인) 그렇지 않음. 제가 명시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어차피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 조정할지도 다 결정할 것이니까 마음 놓고 다 한 번,” 2018년 초에 제가 2017년 감사를 마치고 OO회계법인한테 “5억 원에서 6억 원 상당의 전표를 한꺼번에 끊은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자꾸 하면 안 된다. 너희 회계팀장 문제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음. 그래서 제가 어쨌든 회계사가 봤는데 나한테 경고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별로 안 좋은 부분이니 까 제가 그 후에 회계팀장을 불러서 “선수금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다 정리해서 보고해 봐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조정할 시기를 판단하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보고한 것이 10억 원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OOO 이사가 얘기하는 것은 2016년 1분기 5억 원, 2분기 5억 원 이런 것이 쌓여서 2018년도에 가니까 60억 원이 된 것이지, 2018년에 저한테 와서 “이거 60억 원 건드린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임.

○ (위원) CFO님 의견은 많이 들었고 OOO 이사님, 방금 CFO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결론적으로 저는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선수금이 다시 보충(make up)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음. 그런데 어쨌든 제가 혐의자였기 때문에 자꾸 쌓여 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고 이런 상황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CFO도 당연히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두려운 상황이었음.
- (위원) 어쨌든 포렌식의 결과도 CFO가 얘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 OOO 팀장님이 두 번째 진술서에 조정전, 조정후 보고도 결정적으로 6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음. CFO께서 회계적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음. 그냥 “보고해라” 하는 수준이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OO회계법인이 하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례(case)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음. 아까 OO회계법인에서 이것을 용인했다고,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 ▶ (진술인) 첫 번째로 OOO 이사가 저한테 문제 있는 회계처리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을 보고했을 때 “6억 5,000만 원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강사 퇴직금이라는 것이 모호한 영역인데 이것을 작년에 많이 쌓아서 이번에 마이너스 조금 졌다. 그런데 그 부분은 OO회계법인에서도 다 보고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 그런

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 OO회계법인의 저희 담당파트너가 감사 발행을 다 해 놓고 저한테 와서 "OOO 이사가 마이너스 전표를 치는데 그 금액이 5억, 6억 원으로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것은 질(quality)이 안 좋아 보이니 회계팀장을 하는 것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회계법인에서 그것을 보고도 감사 자료를 찍고 하는 얘기니까 'OOO 이사의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위원) 제가 금감원에 잠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 OO회계법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음. 그런데 이것이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여서 지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인지,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퇴직급여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인과 문답을 진행했고, 감사조서에도 확인은 되어 있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IFRS 방식이 아닌 기존의 퇴직급여추계액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감사인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감사인이 중요성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지도 않고 이 정도 금액이면 중요성금액에 미달하겠구나 하고 임의로 판단을 해서 가볍게(minor) 통과(pass) 시킨 사항임.
- (위원) 퇴직금 부분을 OO회계법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했는지 용인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 (진술인) 보통 감사법인과 회기를 마치면 감사를 하고 나서 환류(feedback)을 주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퇴직급여에 대해서 환류(feedback)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18년초에 ООО 이사한테 오히려 제가 “이 6억 5,000만 원이 어떤 이슈(issue)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음. 그랬더니 ООО 이사도 저한테 “OO회계법인에서 다 봤는데 잘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강사퇴직금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음.

○ (위원) 제가 금감원 측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음. 결론적으로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것은 ООО 전무가 맞는지?

- (보고자) 아님. 모회사 감사인인 OO회계법인이 강력하게 요청하여 포렌식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음.

○ (위원) CEO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

- (보고자)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 ООО 전무가 ‘ООО CEO에게 2018년 2분기 이후’ 라는 표현을 썼음. 2분기 이후에 카톡으로 선수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포렌식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회계부정 관련 행위는 회계팀장 ООО 이사가 실행을 했고 CFO인 ООО 전무는 인

식을 하고 있었고 000 대표에게 보고된 것은 맞음. 000 대표이사가 카톡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금감원이 확인한 것임. 그리고 '1) 외부 전문가의 포렌식 결과 및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이사의 의도적인 회계분식 지시나 방조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대표이사의 방조, 묵인도 없었는지? 2018년 2분기 이후에 CFO가 CEO한테 일정한 내용을 카톡을 보내 보고했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조, 묵인 이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CEO 000임.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선수금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 원래 몰랐음. 저는 학원 영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영을 해 왔음.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련 정보에 대해 죄송스럽습니다만 매우 미흡함.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선수금에 대해서 제가 학습을 했고,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솔직히 잘 몰랐음.

▷ 진술인(제153호 관련)이 퇴장함.

○ (위원) 회계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시인하고 있고 CFO도 결국은 알고 있었고 CEO도 알고 있었음.

- (보고자) 제가 포렌식 보고서 내용을 읽어 드리겠음. '문: 대표님께 선수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되었나요?'라고 했더니 '답: 과거에 선수금을 미리 인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 1분기에 그만큼 손해 본 측면이 있음을 2018년 2분기 이후에 사후적으로 카톡에서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 다만, 그 이후 직원들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어서, 또 ‘2분기 이후’라는 표현 때문에 시기가 특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CEO는 조치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음.

- (위원) 그러면 CFO 주도의 회계부정이 되는데, 우리가 통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아님.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혐의가 높은, 주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하는데 대표이사가 정말 혐의가 없으면 그 밑에 CFO 고발하고 실제로 밑에 타이핑했던 실무 직원까지 그렇게 관계자들을 다 고발하지는 않음.
- (보고자) 보통은 저희가 회사와 CEO, CFO 정도를 함.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허위전표를 작성 등 회계분식의 질이 상당히 안 좋음. 또 하나는 2018년에 지정감사를 앞두고도 회계분식을 할 정도로, 또 CFO가 알고 수정 안 할 정도로 분식회계 방법과 시기 등 질이 상당히 안 좋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통보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 (위원) 회계위반에 대한 주체가 CEO이냐, CFO이냐, 회계팀장이냐에 따라서 양정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 (보고자) 증선위 운영 방향은 지금까지 CFO 또는 CEO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회사의 행위로 간주해 왔음. CEO는 보고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CFO나 CEO, 혹은 둘 다, 또는 회사까지 해서 검찰고발 통보를 해 왔음.

- (위원)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회계 위반에 대한 주체를 CFO 보다는 회계팀장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음. CFO가 아주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원안에 동의함.
- (위원) 포렌식이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cost)이 상당히 드는 부분임. 그러니까 감사인이 부정혐의가 있어서 그것을 지배기구에 보고를 했을 때 이 포렌식을 가지고 제재의 조치로써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 조심스러움. 물론 회사는 자기들을 방어(defense)하기 위해서 포렌식 보고서를 이용하지만 감독당국에서 그것을 다 들여다보면 어떤 회사가 포렌식을 받으려고 하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그다음에 16억 원이라는 분식금액은 회계기준 위반이고 그것은 CFO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행위로 보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업무정보제공인데, 어쨌든 회사가 포렌식까지 하고 그것을 다 정정(correction)하는 행위는 했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분식의 유형들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분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음. 그래서 저도 금감원 원안에 동의함.
- (위원) 회계팀장이 나름 창의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CFO한테 조정방식, 액수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음. 그러면 CFO가 조정

방식과 숫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수정이 없었다는 것은 고의로 충분히 의결할 수 있음. 그다음에 당초 '고의 II단계'로 했다가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감리 전에 수정공시했다는 것 때문에 이미 2단계 감경을 했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감경을 할 사유는 없는 것 같음. 그래서 저도 금감원 원안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69호 『(주)에스디생명공학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종속회사 손상평가는 우선 손상징후가 있는지부터 평가해야 함. 그리고 그 손상징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인 2018년말, 그리고 감사보고서 발행시점인 2019년 3월초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저는 이 시점에서 해당 종속회사가 손상징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감사결과 손상징후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에스디생명공학 종속회사 중 하나인 (주)OOOOOOOOO는 설립한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인 2018년 10월경에 회사 본사 및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수행하였음. 그 당시 (주)OOOOOOOO는 설립 초기단계로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음. 사업계획서를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2019년에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장 및 기계장치를 증설하여 대량생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원가의 절감이 가능해지고 일부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사업계획서상 아무런 손상징후가 없었음. 더군다나 2018년에만 모회사에서 약 61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종속회사의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었으므로 사업계획서상 회사의 계획은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2019년에 갑자기 모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주)OOOOOOOO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증설이 2019년이 아닌 2020년에 실행되었으며 연구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서 2019년말 시점에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저는 2019년말 시점에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금액의 대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저는 각 시점에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토대로 손상징후를 평가했음. 2018년말 기준으로 (주)OOOOOOOO는 설립한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 식품회사 특성상 설립 초기에는 연구개발과 공장증설 등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만으로는 손상징후가 될 수 없음. 저는 제가 수행한 상기의 감사절차들을 토대로 2018년말에는 손상징후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OOO도 마찬가지임. 2018년에만 35억 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며, (주)OOO의 사업계획서 또한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었음. 결정적으로 (주)OOO

는 2019년 3월말에 모회사에 흡수·합병될 계획이었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모회사에서 (주)OOO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주)OOO는 연구개발과 광고선전비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향후에 충분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따라서 당연히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에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색조화장품 매출 감소까지 반영하여 2018년의 손상징후라고 주장하는 금감원의 논리는 잘못되었음. 저는 2019년에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을 반영하여 2019년말 감사보고서에 (주)OOO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종속기업 손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저는 2018년 기말감사시 종속기업 손상평가에 대하여 그 당시 입수가능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실사까지 실시하여 필요한 감사를 절차대로 충분하게 수행하였음. 저는 2019년 2월 실제 성과가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2019년 감사보고서에 두 개 종속회사 모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 (위원) OOO 회계사님께서 손상징후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서는 손상징후가 없다고 보고 조서를 작성하셨음.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주)에스디생명공학 종속회사의 경우 부정적인 징후는 전혀 없었는지?

- ▶ (진술인) 부정적인 징후라고 하면 2018년에 순손실 발생한 것, 그리고 (주)OOO의 소송 사건 외에는 특별히 부정적인 징후는 없었음.
- (위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실의 규모, 사업을 할 때는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 내지는 추정 사업내용 이런 계획이 회사 내부에 있는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 추정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된 사업의 내용이 일치했는지?
- ▶ (진술인) 2018년말 작성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2019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임. 그런데 2018년말 시점에 저 는 2019년도 실제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음.
- (위원) 그 시점에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중속회사의 2018년 계획 및 실적 비교’라는 자료가 있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남.
- (보고자)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한 것은 2017년과 2018년 계획하고 2017년, 2018년 실적과 대사를 해 본 것임.
- (위원) 차이가 나는 정도가 얼마였는지?
- (보고자) 계획 대비 한 20% 정도 밖에 실적을 못 내고 있었음.

- ▶ (진술인) 2017년도에 회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7년도는 설립한지 반년도 안 되었음. 2018년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증설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금감원은 2018년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이 2019년 실제치와 다르다고 해서 2018년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018년말에는 2019년 실제치를 알 수가 없음.
- (보고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주)OOO 2017년 계획과 2017년 (주)OOO 실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비교해 봤음. 그다음에 2018년 (주)OOO 계획하고 2018년 (주)OOO 실적하고 비교를 했음. 2019년 수치로 한 것이 아님.
- (위원) 실제와 추정매출의 차이가 아까 금감원 표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남. 그러면 그 내용이 감사조서에 담아서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이 되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진술인) 내용이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보고자) 아님. 회계사님이 작성한 감사조서에는 회사의 사업계획서 이외에 손상징후를 검토한 다른 문서는 확인 안 되고 있음.
- ▶ (진술인) 2018년도말 시점에는 아직까지 기계장치조차 제

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손상을 평가하려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됨. 회사의 성장가능성과 자산의 투입 가능성, 제품개발과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대외적인 시장 가능성까지 다 평가해야 됨. 그런데 단지 그 하나, 설립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인 2018년말 사업계획서가 2018년도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손상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처음 설립한 이런 회사들은 연구개발과 투자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함. 그리고 공장과 기계장치 설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요함.

- (위원) 2018년도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손상을 계상하라고 금감원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하듯이 2017년, 2018년 추정매출액과 추정사업계획과 실제 사업계획의 차이가 실제가 계획대비 20% 밖에 안 났다고 얘기하고 있음.

- ▶ (진술인) 2017년말 사업계획서는 설립한지 반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 그리고 2018년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음. 공장이 증설되어야 되고 연구개발과 제품 시판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아직까지 연구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장 증설도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저는 이것이 2019년도에 가서 연구개발이 마무리되고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충분히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저는 손상징후에 대해서 평가를 2019년말로 이월 시켰음.

- (위원) 감사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손상과 관련해서 이 조서 말고 회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추가적인 조서가 있는지?

▶ (진술인)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실질에 우선한 나머지 조서는 조금 미흡하게 작성될 수 있음. 하지만 조서상에 없다고 해서 제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님. 저는 충분히 기준에 따라서 수행을 했고 저는 공장 실사까지 다 수행했음. 저는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생각함.

▷ 진술인이 퇴장함.

(16시23분 정회)

(16시51분 속개)

- (위원) 진술인이 ‘중과실 IV단계’에 대해 본인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중과실 IV단계’가 합당한 조치라는 것을 이전 관례나 현행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작성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러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다음번에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음.
- (위원) 감사조서나 이런 것이 부실한 것은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외 문제이고 초기단계이기도 하므로, 이를 감경의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는지?
- (보고자)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했는데 초기 피투자회사 손상

사례 관련해서 2021년 5월31일 조치한 사례가 있음.

- (위원) 당연히 초기기업도 손상에 대해서 ‘중과실’로 지적할 수 있음. 그것은 감사인 감사절차의 흠결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사례(case)에 있어서 모회사가 자금도 풍부했고, 또 광고선전비 같은 지출로 인한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뒤에 나오지만 상표등록 같은 외부 여건이 해결됐으니까 그런 것을 경감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봐주면 좋겠음.
- (보고자) 저희가 ‘중과실’ 논거로 판단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음. 우선, 2017년에 두 회사 다 인수했음. 그다음 2018회계연도부터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감사인은 2017회계연도부터 계속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과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기업회계기준에 예시된 손상징후가 존재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제시자료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여 손상징후가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회수가능액 추정조차 한 사실이 없음. 과거 종속회사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은 감사인에게 ‘중과실’을 조치한 사례가 있음. 손상징후를 확인하고 손상차손 검토를 하면서 회수가능액 추정과정에 가정 등의 합리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중과실’ 조치한 사례도 있음. 워낙 강하게 주장(appeal)한 부분도 있고 회사에 협조하고 그런 것을 정상참작해서 저희가 1단계 감정을 반영했음. 그 이외에 추가로 감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금감원 의견임.

○ (위원) 지금 1단계 감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그러함. 기타 정상참작까지 해서 저희가 1단계 감경하고 있음.

○ (위원) 본 사건의 감사인인 OO회계법인은 ‘중과실 Ⅲ단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 (보고자) 회계법인 차원에서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OOO 회계사가 보조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주책임자임. 그런데 실질과 형식에 대한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의 구분 같은 것은 안 하는지? 예를 들어 이분이 실질적인 주책임자라고 한다면 보조책임자로서 1단계 감경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 (보고자) 맞음. 그분이 연세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담당이사가 이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음.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담당이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또 OOO 회계사도 법인에 복귀해서 다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책임자로서 조치하고 있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70호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사는 ‘중과실 II단계’이고 감사인은 ‘과실II단계’에서 적극협조를 해서 2단계 감경을 했음.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위원회 (소수의견 1인)’에 동조를 하는 편인데, ‘과실II단계’에서 ‘과실 IV단계’로 2단계 감경한 이유를 보면 ‘회사가 심사 착수일 이전까지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수정·공시하도록 적극 노력한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2017년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적시를 못했고 2018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계약서를 요구했다고 했음. 그러면 수정공시한 이유가 본인들이 자진해서 수정공시한 것이 아니라 2018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계약서를 요구해서 본 건이 지적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못해 수정·공시한 것이지, 적극 노력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음. 감사인에 대해서 ‘과실 II단계’에서 2단계 감경까지 간 것은 과도한 감경이라는 견해임.

- (보고자) 보통 회사가 자진수정 행위를 했고 거기에 감사인이 관여한 사실이 문서 등으로 확인되면 저희가 노력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시기에 따라서 1단계 또는 2단계

감경을 해 주었음. 저희도 그런 틀에 따라서 이런 조치 양정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음.

○ (위원)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호주 이외에 다른 해외에서도 매출이 있는지?

- (보고자)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미국도 있었고 동남아에도 있었음. 그런데 계약서는 호주 계약서와 다 동일했음.

○ (위원) 미국과 동남아도 대리점으로 넘겼을 때 FOB(free on board)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동남아도 추가약정이 또 존재하는 것인지?

- (보고자) 미국과 동남아는 추가약정이 없고 FOB로 인식하고 있음.

○ (위원) 호주만 추가약정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2018년 감사인은 계약서를 요구하고 2017년 감사인은 계약서 요구를 안 했는지?

- (보고자) 아님. 2017년 감사인도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계약서를 회사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 그러니까 회계팀과 공유가 안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 측에서 놓친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절차를 다 수행했지만 찾지 못한 사안임.

- (위원) 그러면 2017년과 2018년 감사인은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의 대응이 달랐다는 것인지?
- (보고자) 2018년에는 회사에서도 몰랐던 별도 약정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음. 그러니까 회사가 제출한 것이고 2017년에는 회사조차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음.
- (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함. 단 하나, '(소수의견 1인)'에 '동위반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큰 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장실질심사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음. 2018년에 회계오류를 지적하면서 2017년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수정하고 2018년 감사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2개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나오니까 바로 상장실질심사로 간 것 같음. 이 부분은 특별히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 상장실질심사로 가지 않고 투자유의종목으로 갔다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인지?
- (보고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은 이후 바로 다다음날에 또 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이틀 사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바로 또 '비적정'을 받는 바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지금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의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2번 받은

경우에는 1년 간 유예를 하기로 한국거래소와 협의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1호 『유진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2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가칭)리커버리자산
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3호 『헤이스팅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점사 결
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부분(part)으로 구성됨. 우선, 처음 두 부분인 사실의 개요 및 사실에 관한 의견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금감원이 지적하는 사실의 개요는 증권형 펀드를 설정하고 대출채권에 전액 투자하였다는 것임. 당사는 겹쳐히 약관 위반의 사실은 인정함. 하지만 당사가 말씀드리는 사실의 개요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펀드의 종류를 구분할 때 약관에 기존과 같이 혼합자산형으로 기입하여야 할 것을 증권형으로 잘못 구분한 것이지, 동 약관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은 과하다 사료됨. 실무상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당사는 투자자, 판매사 등을 기망하거나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음. 왜냐하면 대출채권펀드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투자설명서와 투자자 letter에 동일한 내용으로 분명히 기재하여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안내하였기 때문임. 당사는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산정의 확대에 관한 시행지침(안)을 제정하여 대출채권펀드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친 후 특별자산형 펀드로만 출시 가능하도록 하였음. 세 번째 부분(part)을 말씀드리겠음. 설립 후 5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소규모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과하며, 금감원이 감경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감경액이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됨. 당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 첫째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회사지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이후 미비된 규정 20개를 추가로 마련

하였음.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금감원의 검사가 곧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검사 후 조치 시에 감경한다는 금감원의 지침 등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음. 다음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음. ○○○○증권 고객에게는 금년 7월말 17억 7,000만 원 전액 지급완료하였고, 나머지 펀드고객을 위하여 그 판매사인 H증권에 보상협의를 제안한 바 있음. 10억 원 한도의 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네 번째 부분(part)을 말씀드리겠음. 당사가 운용하였던 두 종류, 즉, 증권형 펀드와 혼합자산형 펀드의 차이는 오직 그 명칭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고 약관과 투자제안서 등의 모든 표현에서 동일함. 즉, 펀드의 종류구분에 실패하였던 것이지, 부당행위를 할 목적과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음. 설정 이전에는 투자제안서를 통하여, 그리고 설정 이후에는 운용과정에서 투자자 letter를 통하여 투자하는 대상 자산이 대출채권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음. 그 결과 투자자 및 판매사는 투자대상자산이 대출채권임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본 위규에 대하여 지금까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하신 민원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됨. 법 제229조가 규정하는 펀드의 종류 구분에 관하여는 동 제249조의8 특례규정에서 사모펀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음. 당사와 판매사, 수탁은행, 3자 모두 이 대출채권을 권리가 표창된 유가증권인 일반사채와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으로 간주하였

던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금감원 검사팀도 임점검사시에는 동일하게 간주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당사는 본 조차원인이 되는 대출채권펀드 고객들께 자본금을 초과하는 규모로 보상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집행 중에 있음. 이는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아무쪼록 당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진행 중인 점, 그리고 금감원 임점검사 이전에 당사가 잘못된 점을 스스로 인지하여 지침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행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양망하며, 훗날 증권 선물위원회의 선처에 고객수익의 극대화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음.

○ (위원) 다른 대출채권형 펀드는 다 혼합자산형으로 집합투자 계약상 명시하셨는데 왜 이 9건에 대해서만 혼합자산형으로 명시 안 하고 증권형으로 명시하셨는지?

▶ (진술인) 처음 저희들이 ○○○○증권과 했을 때는 혼합자산형 펀드로 출시를 했음. 그런데 어느 날 △△증권에서 저희들에게 자꾸 대출채권펀드 출시를 권유하기 시작했음.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협의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증권에서 하는 말이 “같은 채권펀드인데 혼합자산형 펀드로 꼭 설정해야 되느냐, 증권형 펀드로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당사는 거기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던 것임. 그런데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탁은행에서 어차피 법률검토를 해 주는데 깊이 있게 보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함. 준법감시인인 제가 작년 4월에 와서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것이 이런 대출채권펀드는 혼합자산형 펀드가 맞다는 생각을 하여 즉시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이후 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음.

- (위원) 협의과정에서 증권형으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증권에서는 혼합자산형을 왜 증권형으로 하라고 협의 했는지? 증권형이 혼합자산형보다 더 유리했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하라고 했던 것인지?

- ▶ (진술인) 혼합자산형 펀드인 경우에는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심사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다고 함.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마 △△증권 PB도 법규를 잘 몰랐던 것 같음. 같은 채권형인 것 같은데 증권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대출채권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 제출 드린 PPT 6페이지를 보시면 대출채권펀드 설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를 보시면 설정 간격이 14개월 가량의 기간이 있음. 앞에 3개를 훌륭히 다 청산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너무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출시 안 하려고 했음. 그런데 앞에 3개 펀드가 전부다 ○○○○증권 펀드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고 난 뒤에 힘들기 때문에 대출채권펀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증권이 그 이후의 대출채권펀드는 저희들이 소개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음. 그리고 △△증권도 마찬가지로

지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증권에서 쪽 하다보니까 소개받은 자산운용사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압력이 들어왔던 것을 14개월을 버티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출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이 대출채권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음. 저희 회사가 비록 5년이 안 된 자산운용사지만 지금까지 60개 펀드를 출시했는데 운용액이 최고는 2,600억 원까지 갔었음.

- (위원) 실수든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펀드의 종류를 잘못 쓰신 것은 인정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설정 이전에는 투자제안서, 설정 이후에는 투자자 letter를 통해서 해당되는 것이 P2P 대출채권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투자제안서, 투자자 letter를 누가 고객들한테 보내는지?

▶ (진술인) 저희들이 작성해서 판매사에 보내면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보냄.

- (위원) 판매사가 고객들한테 설정 이전에는 제안서, 설정 이후에는 투자자 letter를 통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투자의 실상을 빠짐없이 모든 고객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줬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 (진술인)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음.

○ (위원) 감경사유로 보상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팝펀딩 대출사기 보상인 것이지, 이 집합투자규약 위반한 9개 펀드의 규약을 위반해서 미안하다고 보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4호 『옵티멈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사는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규정 정비 및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개선노력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과태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출한 의견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 거래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금지 및 펀드이익 훼손 금지 위반의 경우

임. 애초 영업담당자가 이득을 보고한 이후 자금 수요자의 경제력이 약하여 자금조달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동화 전문회사(SPC)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님. 또한, 법 위반의 노출위험시기가 불과 4개월에 불과하였고 펀드 투자자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 일련의 행위가 회사의 자문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가 부주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불법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함. 또한,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것임. ○○증권(주)의 경우 TRS계약에 의해 펀드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사가 펀드 설립 시 미매각된 자산을 거래한 것에 불과함. 또한, 고유와 펀드 간의 거래를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반규모가 1억 원 정도로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당사가 1호 펀드로 다소 부주의했던 것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역시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 마지막으로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진행이 겸영업무 신고 전이었으나 겸영업무 신고하는 것에 시간이 지연되었고 겸영업무를 신고한 후에 수수료를 수취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겸영업무 신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사후보고로 바뀌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 과태료 부과 건 모두 신생 소규모 자산운용사로서 갖는 한계와 미숙한 점에서 비롯된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 중과실이 없었으며 위반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하자가 치유되는 등 사정이 존재함. 또한,

최근 사모펀드의 경우 수탁사 펀드 설정이 매우 어려워서 수익창출도 어려운 점을 배려하시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안건 제1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PBS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수탁사의 하나로 PBS를 포함시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PBS가 수탁회사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임. PBS가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기능을 하는 내용은 법개정 사항으로 반영이 되어 있음. 시행령에 특별히 위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시행령에 들어가지는 않았음.

○ (위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해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쉽게 말해서 개인전문투자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음. 그런데 내국인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음. 외국인은 개인 포함하여 전문투자자이면 되고 내국인은 안 되는 것은 역차별 아닌지?

- (보고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 전용에 일단 개인은 안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예외를 준 이유는 저희가 투자자 보호의 실익이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음. 그다음에 해외까지 투자하는 외국인은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했음.

- (위원)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구체화 해서 PEF 외에도 일반사모펀드도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데, 15년 처분은 왜 15년인지?

- (보고자) 펀드를 통해서 영속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예전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밖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지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굳이 15년이라는 제한이 없었고, PEF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를 허용하면서 15년 내에 펀드를 해산하도록 했었음.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경영권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업의 지분을 15년 안에 처분하라고 똑같이 준용했음. 그러니까 현재와 바뀌지 않는 범위 내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78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79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0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1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2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3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4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5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37호(2020년)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38호(2020년)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39호(2020년) 『현대차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증권사의 매매각 방식 및 수수료 지급 현황이라고 금감원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하나금융투자(주), 메리츠증권(주), 현대차증권(주)을 제외하고 남은 숫자만 보면 할인매각한 것이 68건, 수수료 지급건이 94건임. 할인을 해 준 것보다 수수료 지급을 택한 쪽이 이 세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훨씬 더 많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타회사의 경우에도 할인과 수수료 지급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했는데 저희 자료 ‘증권업계 현황 표’를 보시면 타사의 경우에는 할인과 수수료를 유사한 비율로 했지만 특히 하나금융투자(주)의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을 주영업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하나금융투자(주)의 대체투자실이라는 특정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수료 지급한 측면이 있어 업계의 관행이라기보다는 하나금융투자(주)의 특수한 영업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위원) 물론 하나금융투자(주)만 보면 이 회사가 유난히 독특하기는 함. 하지만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회사에 대해 제재를 해야 된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숫자는 작지만 ○○○○○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수는 작지만 수수료 지급한 것이 4배임. 하나금융투자(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3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안 하는 이유가 숫자가 적기 때문인지?

- (보고자) 당시 부문검사를 3개사에 대해서 테마검사를 진행해서 3개사에 대해서 이번 조치 건으로 올린 것이고 나머지 회사들도 증선위에서 이번 조치 판단기준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모수가 많은 하나금융투자(주)를 빼더라도 오히려 수수료 지급 쪽이 전체 숫자가 더 많음. 그래서 시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비즈니스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하게 일관된 하나의 기준을 감독당국에서 주지 못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저희가 하나금융투자(주)를 꼭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문답뿐만 아니라 녹취내용을 확인한 것이 있음. 그런 녹취내용을 보면 처음에 수요조사(tapping)과정에서 조차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만큼 줄 수 있으니 너희 이런 것 할 수 있니 하는 내용들이 나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미매각된 이후에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부터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꽤 많이 나옴. 회사들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면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보고자) 다만 통상 증권회사는 3개월이 넘어가면 미매각으

로 관리를 하기 시작함.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것은 미매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통상 3개월에 거래(deal)가 끝난다는 얘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위원) 3개월 이후에는 미매각으로 본다는 것 때문에 실제 같이 용역에 참여하고 투자를 위한 일종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수행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두 달 안에 재매각(sell-down)을 받았던 보험회사 입장에서 사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두 달 후에 재매각(sell-down)을 수수료 받고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임. 1건, 1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음.

- (보고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음.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보고안건 제40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41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42분 폐회)